



네트워크 포토그래퍼의 피터 조든 내회



대전역에서 열린 합동 에이즈예방캠페인

상반기 에이즈감염인 추가로 159명 발견

국립보건원은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159명의 에이즈 신규 감염인이 발생하여 총 국내 에이즈감염인 발생 수는 1,439명으로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5% 증가한 것으로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올해 처음으로 총 감염인 발생 수가 3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감염인 가운데 23명이 환자로 전환됐고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도 30명에 이르렀다.

특히 10대 남성 동성애자 2명과 10대 여성이 각각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 접촉을 통해 10대 여성이 감염된 것은 '99년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감염경로가 확인된 1,209명 가운데 성접촉에 의한 감염은 1,167명(97%)이며 나머지는 수혈이나 혈액제제 38명, 모자감염 2명, 마약주사 2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자 1,256명, 여자 183명으로 성비가 8:2의 비율이었고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발견 당시) 30대가 519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414명, 40대 282명 등이었다.

에이즈 치료법 2010년 국내 개발

2010년경에는 국내 의료진에 의해 에이즈 치료법이 개발되고 유전자 기술을 이용한 획기적인 탈모 치료법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당뇨병과 간염 등의 병인이 규명되고 새로운 항암제와 암 예방제가 시판되며 노인성 치매 환자가 무

엇을 원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산학연 전문가 338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산업기술 547개 과제의 실현시기 등을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미래보건사업 기술예측'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 수준은 현재 선진국의 51.1%로 선진국에 비해 분야별로 1~4년 정도 뒤진 상태이나 앞으로 상당한 진보가 예상된다. (동아일보, 8/21)

'네트워크 포토그래퍼' (Network Photographers)의 피터 조든(Peter Jordan) 내회

'네트워크 포토그래퍼'의 사진기자 피터 조든씨가 한국의 에이즈감염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네트워크 포토그래퍼'는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서 환경문제나 에이즈 감염인 등의 인권문제 등에 관한 사진을 제작하고 전시하여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새롭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촬영된 사진들은 세계 각국에서 촬영된 다른 사진들과 함께, 오는 10월에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긍정적 삶(Positive Lives)'이라는 주제 하에 전시되는 것을 시작으로 각국을 순회하면서 전시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에이즈예방캠페인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 전 세계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에이즈예방교육 실시 예정

세계적인 청바지 생산회사인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세계 각국 지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8-10월 중 한국 지사 직원들과 도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 내용은 에이즈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감염인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차별방지 등이다. 이번 교육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직원들의 에이즈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로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다른 기업도 직원들의 에이즈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양쉼터운영 큰 성과

본회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쉼터는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는 감염인들에게 숙식은 물론 건강상담과 교육, 의료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사용 연인원이 총 3,418명으로 서울 쉼터 2,132명, 부산쉼터 732명, 여성쉼터 554명에 달하고 있다. (2001년 7월말 집계)

현재 체류하는 감염인 수는 서울 쉼터 14명, 부산 쉼터 5명, 여성쉼터 7명이며 감염내과 전문의들에 의한 방문 의료지도가 총 30여 회 실시되었고 3회에 걸쳐서 호스피스교육이 이루어졌다.

총 23명의 자원봉사자가 일손보조 및 가정간호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총 31회에 걸쳐 소그룹토의가 있었다.

에이즈환자 치료보조금 지원 계속

본회는 감염인들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해 치료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치료보조금 지원사업은 초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에이즈환자에게 외래진료비에 한하여 최고 2백만 까지 후원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2001년 7월말까지 총 73명의 에이즈환자에게 62,910,513원의 치료비가 지원되었다.

해운대에서 에이즈예방 캠페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부산광역시회는 8월 3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부산시 각 보건소의 에이즈 담당 보건요원들과 구세군 에이즈예방 대책팀과 합동으로, 하기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휴가철에 증가하는 에이즈감염 위험에 대비하여 에이즈감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안전한 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부산광역시회 상담실에 대한 안내와 에이즈에 대한 기본 지식과 예방법이 적힌 부채와 손타월을 리플렛과 함께 배포하였고 피서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7-8월)

강연황	10,000	박은숙	94,500
김두포	20,000	박진건	10,000
김매자	10,000	서영아	10,000
김안나	10,000	유금숙	10,000
김의석	100,000	이영숙	50,000
김안구	10,000	이인숙	10,000
김정복	10,000	이창우	150,000
김정숙	10,000	임창만	10,000
김정실	10,000	장병찬	10,000
박광서	80,000	하치향	10,000
박송원	10,000	함유식	20,000
박원주	250,000	합계	914,500